



**Tübingen Korean Studies
Lecture Series
튀빙겐 한국학 특강 시리즈**

November 24, 2021 (Wednesday), 18:00 c.t.
Wilhelmstr. 133, Room 30

Prof. Kyeong-Sook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조선후기 산송(山訟)과 분묘 의식” [The Idea of Graveyard in Late Chosŏn Society with the Focus on Litigations] (in Korean)

Abstract:

산송은 묘지를¹ 다투는 분쟁으로 노비송(奴婢訟), 전답송(田畓訟)과 함께 조선시대 3대 민사소송의 하나이다. 산송은² 16세기 후반 이후부터 등장하여 조선후기 사회 전반으로 유행하며 열풍처럼 휩쓸었다. 양반 집안이라면 산송 한번 겪지 않은 집안이 없을 정도였다. 본 특강에서는 산송의 발생 배경을 부계친족질서 형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선산(先山)의 형성과 분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 현상을 살펴본다. 또한 산송의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 당대인들의 일상의 삶과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자 한다.

¹ 묘지: Graveyard

² 선산(先山): Graveyard for patrilineal-family

Prof. Kyeong-Sook Kim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2002년에 ‘조선 후기 산송과 사회 갈등³’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문서와 일기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사회 문제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양상을 연구하고 있다. 『조선의 묘지 소송』,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共著) 등의 저서가 있다.

³ 조선 후기 산송과 사회 갈등: Lawsuits filed by various parties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Chosŏn dynasty, to secure their right to the Family Mountains -A Study of Social Clashes